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우근/이명숙 김준호 명지혜 문영원/이명철 박순용/이승에 방석태/차욱자 백성원/안지영 석형기 윤병용/백남실 이근자 이철숙 이찬호 이한용/김순옥 장성자 전병규/이인숙 정영실 정은현 채만기/정은주 최상길/이미향 / 20명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봉성 김순옥 명지혜 박순옥 방석태 백남실 백성원/안지영 윤영준/박진숙 이강우 이근자 이명희 임영근 임형문 장성자 정영실 채만기 최봉순 최경규/김미영 무 명 새롬에니메이션 / 20명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병윤/이명숙 김순옥 김정자 김지훈 김창훈 김정호 김준구 김준현 김지훈 김철수 김준하 김혜란 박순자 박정숙 박종삼 석형기/이희순 손명희 엄영분 오현진 윤정호/유욱자 윤호로 이준휘 이향교 전병규/이인숙 조규영 채명영 채희순/황영실 최기훈/정계숙 최점순 무 명 박진홍/유광희 / 27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김명숙 김민성 김수현 김유준 김정훈 김준구 김준현 김지훈 김철수 김준하 김혜란 박순자 박정숙 박혜진 박희영 백경자 송백현 신유진 안지영 양영옥 이경자 이가자 이소은 이승에 이옥남 이인숙 이진우 장하람 정옥순 정혜지 주성택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무 명 양일석 이노윤 정승현 / 38명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48주: 아가 4장 1절 ~ 요나 1장 17절				
주 일	아가 4장 1절 ~ 5장 1절			
월요일	아가 5장 2절 ~ 6장 1절	목요일	아가 8장 1절 ~ 14절	
화요일	아가 6장 2절 ~ 10절	금요일	요나 1장 1절 ~ 10절	
수요일	아가 6장 11절 ~ 7장 13절	토요일	요나 1장 11절 ~ 17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건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욱 장영원 이혜서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이명학			
	전 도 사	이필래			
찬 양 대	교육전도사	이승이 문수경 심 찬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찬 산 나 : 김안나 시온예단 : 최원지 엔 겔 : 이난수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강민주 김미희 김성경 공희라		
		클라리넷	박진숙 이남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정예슬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신숙	
		수 리 남 : 안석필 이성옥	A X 국 :	김혜열	
		미 국 : 김다나엘	A X 국 :	이분득	
	미 국 : 최욱희	A X 국 :	박동권 김영화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 김홍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동포시교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7. 11. 19. 주일 예배 설교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도행전 27장 33-44절

설교자 이진우 목사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 받은 후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절기를 지켰던 것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근본적으로 성경에 뿌리를 두고는 있지만 역사상에 나타난 기원은 17세기 초 영국의 국교로 인한 박해에 밀린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대륙 동쪽 플리머스에 도착했는데, 기원도 다르고, 원주민인 인디언과의 융화가 안 되어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열심히 농사하여 인디언 100여명을 초청하여 칠면조를 잡고 많은 과일과 맥을 준비하고 3일 동안 잔치를 한 것을 기원으로 이것을 법으로 정하여 지킨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초대 미국의 대통령인 워싱턴은 이에 1789년 11월 25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공포했고, 아브라함 링컨은 11월 마지막 목요일부터 3일간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며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마지막 주일은 멀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 오늘 우리들이 지키시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오늘의 슬픔이 우리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낙심과 좌절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절과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소망, 그리고 그리 아니하심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감사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감사의 모습은 과연 어떤 감사였습니까?

1. 폭풍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 바울의 일생은 지중해상을 향해 중 뱃바에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 조난을 당합니다. 배의 짐과 기구까지 바다에 버리고 그들은 무려 14일간 해와 별을 보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이 없이 그저 불인과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 떨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어 먹기를 시작하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 **“축사”** 라는 말은 헬라어 “유카리스테션” 으로 “유카리스테오” 의 파생형으로 이 뜻은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맛고 쫓기고 상처가 나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2. 적은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 14일 동안 278명이 풍랑 속에서 있었으니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어 먹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적은 것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과 소망으로 인한 감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없는 자는 큰 것도 감사할 수 없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더 큰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 자신에게 이루어진 큰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일을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의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는 큰 은혜로 채우시며 이루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방 한 조각 그것으로 감사 기도하는 조지 물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셔서 일평생 2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이끄셨습니다. 적다고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 본문 35-38절에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어 먹기를 시작하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밤이 먹으니.”** 라고 했습니다. 또 44절에서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고 했습니다. 을 2017년 추수감사주일엔 사도바울처럼 은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서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안심하게 하시며 구원하시며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감사를 봅시다. 그의 감사는 폭풍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형제를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바울에게 말씀하신대로 그들은 생명의 구원함을 얻었으며 그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로 폭풍이나 역경이나 고난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받은 은혜, 받은 물질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많이 받을 때나 적게 받을 때나 변함없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셨습니다.

SINCE 1975

No. 43 - 48

2017. 11. 26.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건고히 서며 형통하게 하소서!” (역대하 20장 20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이진우
Senior Pastor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 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환영합니다 / 사랑합니다

[1부] 오전 7시	사회: 윤 조 훈 장 로
[2부] 오전 9시 30분(로렘나무)	인도: 이 영 학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214(통349)장 다 갈 이
(Praise)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통 성 기 도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유 현 호 집 사
(Prayer)	(3부) 윤 조 훈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시편 68편 19~27절구약P.848]
(Scripture)	[2부] 에스라 1장 1~11절구약P.711]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200장]
(Anthem)	[3부] 내가 주의 신을 떠나[최재도]
설 교	[1,3부]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Sermon)	[2부]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자 환영	
헌 금 봉 헌	[1,2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3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유상백]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538(통327)장 다 갈 이
(Praise)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베드로 · 바울 · 요한 남전도회 연합 헌신예배

오후 3시	사회:[베드로회장] 방 석 태 장 로
목 도	할렐루야찬양대
성 시	시편 48편 8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헌 신 결 의	[요한부회장] 채 만 기 집 사
찬 양	찬송가 274(통332)장 다 갈 이
(Praise)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기 도	[바울회장] 윤 조 훈 장 로
성 경 봉 독	이사야 17장 1~11절구약 P.97장]
[요한회장]	오 택 현 집 사
찬 양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남은 자의 신앙 이 진 우 목 사
예 들 봉 헌	기도: [바울회계] 박권재 장로 다 갈 이
특 송	남 전 도 회 연 합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323(통355)장 다 갈 이
(Sermon)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축 도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시 온 찬 양 대
기 도	[다음주:전순봉권사]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10장 1~12절[신약 P.109]
설 교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아유치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렘나무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렘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토요일 오후 6:00 로렘나무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도특공대	목요일 오후 2:00 제1교육관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 광고
- [총동원 주일 환영합니다.]
오늘(26일)은 하반기 총동원 주일입니다. 교회에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로렘나무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인도자와 함께 꼭 식사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베드로 바울 요한 남전도회 헌신예배]
오늘(26일) 찬양예배는 "2018년도 회기 남전도회 연합 헌신예배"입니다.
 - [남전도회 총회]
오늘(26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남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남전도회원님들은 필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주일]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에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 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요기도회]
이번 주(12/1) 금요기도회는 "건축위원회"주관으로 합니다.
 - [2018년 성단 · 차 · 중식집대 신청]
"2018년도 성단 · 차 · 중식집대"를 사랑으로 성결 분들은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란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시찰]
영등포시찰 모임이 11월 28일(화) 서문교회 크리스찬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 [교역자 사임]
부교역자로 수고하시던 이영학 목사님께서 오늘(26일)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남전도회 총회(3부예배후/본당)	* 장로회월례회(찬양예배후/장로회실)
* 지휘자/반주자 모임(찬양예배후/찬양대연습실)	

◎ 교우소식

이상학 집사(이한철 집사, 박희영 권사 장남/사랑2개봉4)와 김혜인 청년 결혼
2017년 12월 2일 소공린벤션 웨딩홀 6층 컨벤션홀 (7호선 상동역 1번 출구 도보 2분, 1호선 송내역 2번 출구 버스 15, 270이음 부천소풍터미널하차)

◎ 담임목사 동정

11월 28일(화) 영등포시찰회 모임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최봉순 권사	심혜원 청년	드보라 어전도회	윤조훈 장로	드보라 어전도회	요한 남전도회
떡	강영성 장로님, 신화순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다음주	이소은 집사	심 찬 전도사	최기훈 장로, 정계숙 권사/ 윤영용 성도, 백남실 권사	강영성 장로	임음1 권영 소망1 고척1	영아 유치부

12월	순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1주(3일)	김종진 집사	김병을 장로	송영숙 권사	강영성 장로	채만기 집사	전순봉 권사	
	2주(10일)	김형국 집사	최기훈 장로	이승애 권사			임영숙 권사	
	3주(17일)	황성연 집사	배경철 장로	이영미 권사	김병을 장로	유승용 집사	심순옥 권사	
	4주(24일)	방원석 집사	임만순 장로	서미영 권사	최기훈 장로	김형국 집사	백남실 권사	
	5주(31일)	채만기 집사	박권재 장로	곽정순 권사	배경철 장로	최상걸 집사	양영옥 권사	
예 배 안 내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